

美 7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

1. 고용 지표

- '15.7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는 전월대비 **21.5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22.5만명)를 **소폭 하회**하였으나 직전 2개월 취업자수는 **상향조정**(+1.4만명)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21.0만명**(예상치 +21.2만명) 증가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0.5만명** 증가
    - 업종별로는 교육·의료 부문의 증가폭이 전월대비 축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업종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
    - 다만 임시직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 직전 2개월치('15.5~6월중) 취업자수는 **1.4만명 상향조정**
    - 민간부문은 **0.6만명 상향조정**  
- 5월: 0.2만명 상향(+25.0만명 → +25.2만명), 6월: 0.4만명 상향(+22.3만명 → +22.7만명)
    - 정부부문도 **0.8만명 상향조정**  
- 5월: 0.4만명 상향(+0.4만명 → +0.8만명), 6월: 0.4만명 상향(0.0만명 → +0.4만명)
- **경제활동참가율**(62.6%) 및 **실업률**(5.3%)은 각각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은 10.4%로 전월(10.5%) 대비 0.1%p 하락
- **주당 평균노동시간**(6월 34.5 → 7월 34.6시간)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시간당 평균임금**(24.94 → 24.99달러, 전월치 0.01달러 하향조정)도 전월대비 0.2% 상승\* (시장예상치 0.2% 상승과 동일)

\* 다만 전월치 하향조정에 따라 전년동기비(2.1%)는 시장예상치(2.3%)를 하회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非농업 취업자수 주요 부문별 증감

	'14.7월	'15.5월	6월	7월
■ 非농업 전체	249	260	231	215
- 민간 부문	243	252	227	210
(건설)	31	12	0	6
(제조)	14	6	2	15
(도소매)	31.7	42.6	39.7	42.2
(운송·창고)	18.3	13.2	13.8	14.4
(교육·의료)	45	57	58	37
(여가·호텔·식당)	23	56	24	30
(임시직)	11.4	8.6	16.5	-8.9
- 정부 부문	6	8	4	5

## 2. 금융시장 반응

### (시장 동향)

- 헤드라인 취업자수 및 실업률 등이 예상치에 근접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유지되었으나 낮은 임금상승률 등으로 금리인상 경로는 완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타나는 등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금리(장기물)와 주가는 하락하였고 **미달러화**는 약세
  - **미국채 금리**는 하반기 금리인상 기대가 유지되면서 최초 금리인상 시점에 민감한 단기물은 상승(2년물 +2bp)한 반면 인플레이션 기대 등에 더욱 민감한 장기물은 상당폭 하락(10년물 -6bp)하는 등 만기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 **주가(다우지수)**는 고용지표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에 따라 근소한 매도우위 장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
  - **미달러화**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일시적 강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강세 지속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소폭 약세로 전환하여 마감
  -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금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국제유가**는 미 원유채굴장비수(rig count) 증가 소식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

주요 금융지표 동향

		'14년말	'15.7말	8.6	8.7 <sup>1)</sup>	전일 대비
미국채	2년물	0.66	0.66	0.70	0.72	+2bp
	10년물	2.17	2.18	2.22	2.17	-6bp
주가	다우	17,983	17,690	17,420	17,373	-0.3%
	S&P 500	2,080	2,104	2,084	2,078	-0.3%
환율(\$/€)		1.2104	1.0984	1.0925	1.0959	+0.3%
금(\$/온스당)		1,182	1,096	1,090	1,093	+0.4%
WTI US/bbl		53.3	47.1	44.7	43.8	-1.9%

주: 1) 뉴욕 16:30분 기준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 (월가의 평가)

- 헤드라인 취업자수, 실업률 등 주요지표가 대체로 시장예상치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기존의 금리인상 시점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시장의 전반적 개선이 9월 금리인상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낮은 임금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부진 등 금리인상 지연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 9월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번 고용지표가 큰 폭의 호조는 아니지만 7월 FOMC 정책결정문 상에 언급된 ‘노동시장의 약간의 추가개선(some further improvement)’ 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12월 인상을 전망하는 측에서는 시간당 평균임금의 더딘 상승속도, 최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세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

(JP Morgan) 이번 고용지표는 **9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양호하며 노동시장의 ‘약간의 추가 개선’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속도가 더뎠다 FOMC가 긴축을 서두를 이유는 없는 상황이므로 9월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close call) 9월 인상 여부는 향후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

(Goldman Sachs) 대체로 시장기대에 매우 근접한 고용지표였지만 시간당 평균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지난달 0.3%p 하락 이후 반등을 보이지 않는 등 일부 부정적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12월 금리인상 전망 유지**)

(BoA Merrill Lynch) 7월 고용지표는 큰 폭의 호조는 아니지만 약간의 추가 개선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금리인상(**9월 예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연준은 안도감을 느낄 것임. 다만 임금상승이 더딘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금리인상 경로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Morgan Stanley) 평균 노동시간 증가는 소비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생산성이 여전히 부진함을 시사하는 지표일 수 있음. 인구증가 둔화 추세와 실망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 움직임이 상쇄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오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달 부진 이후 반등을 보이지 않은 점은 향후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가능성과도 관련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임(**12월 금리인상 전망 유지**)

(Barclays)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함에 따라 **9월 금리인상** 수순(on track)을 지켜나가기에 용이해진 것으로 판단. 8월 고용지표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이 남아있어 연준이 금리인상을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9월에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

(BNP Paribas) 이번 고용지표는 부진도 호조도 아닌 모습을 보여 최초 금리인상시점(9월 vs. 12월)에 대한 결정적인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음. 이에 따라 종전의 **12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

(Deutsche Bank) 주요 헤드라인 지표들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가운데 U-6실업률이 추가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도 4.0%로 2008.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Yellen 의장이 강조한 노동시장 지표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음. 이처럼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지속함에 따라 연준은 **9월 금리인상** 수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